

대학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

- 영어·중국어·일본어 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

박신향*
arncott@hanmail.net

<目次>

- | | |
|---------------------------|--------------------------|
| 1. 서론 | 3.3 연구 도구 |
| 2. 이론적 배경 | 3.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 2.1 교양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선행연구 | 4. 결과 및 논의 |
| 2.2 교양교육과목 수강신청 기준 선행연구 | 4.1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
| 3. 연구 방법 | 4.2.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 기준 |
| 3.1 연구 과제 | 5. 결론 |
| 3.2 연구 대상 | |

主題語: 교양교육(general education), 외국어교육(foreign language education), 학습자 인식(students' perception), 수강신청 기준(course selective factors), 학습자 중심(student-centered)

1. 서론

지난 수 십 년간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하에, 전문지식 습득을 중점으로 하는 전문화 교육에 힘써왔다. 하지만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하는 현재의 대학에서는 전문화 교육과는 차별되는 보편고등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백승수, 2012; 정혜진·김경원, 2016).

보편고등교육이라는 대학교육의 시대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교양교육이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일환인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과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그리고 각종 대학평가 유도 지표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학교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설립되는 등, 정부의 교양교육에 대한 정책적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권대봉 외, 2002).

*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정부의 교육정책에 발맞춰 많은 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교양과목은 전공 학습을 위한 전공기초 과목, 취업준비와 여가활동을 위한 과목, 또는 졸업을 위해 쉽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치부되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교양교육의 특성화를 추구하고자 대학마다 교양교육의 이념 및 인재상 재확립, 교양교육과정 개편 등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에는 크고 작은 부작용도 따른다. 조금주(2015)는 대학이 국가와 시장이라는 외적 요구로 인하여 교양교육이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면서, 교양교육의 이념 부족, 정체성 혼란, 낮은 운영 비율, 체계적 교수학습법의 미흡 등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양교육 구성원 간의 소통이 필요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합의된 교육적 관점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양교육 구성원 간의 소통이 교양교육 재구조화 과정에서 필수적이라는 조금주(2015)의 제언처럼,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해당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하는 노력은 여러 연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치봉(2002)은 교양·기초교육과정에 대한 교수와 학생들의 인식을 비교하였고, 박완성(2010)은 학습자의 교양과목 교수방법 선호도 및 평가를 알아 본 바 있다. 이외에 교양교육 만족도, 교육적 경험, 학습 성과와 관련한 학습자의 인식에 관한 백평구(2012)의 연구와 학습자의 교양과목 선택 기준을 살펴보았던 박노국(2001)의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모두 교양교육 구성원들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조사한 실증적 연구들이다. 하지만 교양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다수는 전체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계열별 또는 영역별 교양과목을 비교 연구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다양한 교양과목들 가운데에 현재까지도 가장 빈번하게 선정된 영역으로는 외국어영역을 들 수 있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체 교양과목에서 외국어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0%에 해당하였다. 개설된 총 교양과목의 수가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양 외국어과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손동현, 2012; 정혜진·김경원, 2016).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에 선정된 7개 대학의 교양 외국어교육 현황을 조사한 임병노(2015)는 외국어 인증제, 외국어와 문화체험 연계, 외국어 라운지 운영, 수준별 수업 시행 등 해당 대학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교양 외국어교육의 강화에 애쓰고 있음을 밝혔다. 교양 외국어교육 영역관련 기존 연구들은 교양교육에서의 외국어교육의 높은 중요도와 위상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대학교육의 변화와 교양교육의 재구조화 그리고 교양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을 종합해 볼 때, 교양교육 구성원의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교양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습자들이 교양 외국어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인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교양 외국어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및 향후 교양 외국어교육의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교양교육의 재구조화, 전체 교양교육의 발전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러한 학습자의 인식이 수강과목(영어/중국어/일본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학습자들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외국어과목을 수강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수강과목(영어/중국어/일본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교양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선행연구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 과제는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본 절에서는 교양교육 전반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다루었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치봉(2002)은 71명의 교수와 88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기초교육과정에 대한 교수·학습자 인식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양교육 만족도를 알아보는 문항에서 설문에 참여한 교수진의 47%, 학습자들의 42%가 현행 기초교양교육에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개설 희망과목을 알아보는 문항에서 교수진들의 개설 희망과목은 대화법, 문제 해결, 창조성 개발 등의 개인 기본 능력 계발에 중점을 두는 과목과 전공과목 학습에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전공기초과목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와는 달리, 학생들은 교과목 능력 향상보다 일상 생활 또는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동중심, 실용중심의 교과목 개설을 희망하였는데 그 분야도 컴퓨터, 스포츠, 정치·사회·문화, 인간 심리, 여성학, 예술·영상·미디어 등 아주 포괄적이었다. 정치봉(2002)은 교양과목에 대한 이와 같은 교수 학습자 간 인식 차이가 교양과목에 대한 학습자의 높은 관심과 교육 현장 참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달리 말해, 교수들은 전공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학습자들은 60%정도에 해당하는 학점을 교양과목에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교양교육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박완성(2010)은 교양과목 교수법과 강의평가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우선 교수법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은 교양필수 영역의 경우에는 강의100%를, 교양선택 영역의 경우에는 강의 및 실습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교양필수 영역보다 교양선택 영역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교수방법에 따른 강의평가에서는 수강인원이 적을수록 강의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성(2010)은 교양교육과정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방법의 사용, 적절한 수강 인원, 강의평가와 관련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좀 더 최근에 발표된 논문으로는 교양교육 만족도, 교육적 경험, 학습 성과에 관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던 백평구(2012)의 연구가 있다. 먼저 교양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학습자들은 교양교육을 아주 중요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양교육의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감을 보였고, 교양교육 학사 및 행정 서비스 제공에서도 학습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교육적 경험과 관련하여서 학습자들은 교양교육이 사실 또는 정보 기억에 편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학습 성과로는 고차적 사고능력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백평구(2012)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학습자의 인식을 캠퍼스별로 비교해 보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학습자의 교양교육 인식은 캠퍼스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교육의 전반적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사지도와 조언, 교수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교육적 경험에서는 다양한 수업 방법과 학습자의 수업 참여 등에서, 마지막으로 학습 성과에서는 청청하는 능력, 창의적 능력 등에서 캠퍼스별 학습자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동일한 교양교육과정 하에서도 학습자의 인식이 캠퍼스별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학습자의 인식이 학습자의 내·외적변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학습자 인식 연구에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고, 나아가 학습자의 외국어 수강과목을 변인으로 하여 좀 더 세분화시켜서 살펴보고자 한다.

2.2 교양교육과목 수강신청 기준 선행연구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 과제는 교양 외국어교육 과목 수강신청 시 학습자들이 고려하는 기준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양교육과목의 수강신청에 작용하는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 기준 선행연구에 대해 논의하겠다.

박노국(2001)은 대학생들의 전공·교양수업 선택 경향을 품질기능전개(Quality Function Development, QFD)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수강신청에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교수 인지도 요인에서는 수업 방식이, 수업 방식 요인에서는 과제와 과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교양과목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수강신청 경향을 연구하였던 박노국(2001)과는 달리, 권보영(2017)은 학습자의 수강선택 기준을 교양과목에만 국한하여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로 교양과목 선택 기준 가운데에 ‘강좌 제목’의 흥미 여부가 수강신청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과목과의 시간배치’가 수강신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의 비율도 22.7%를 차지하였다. 담당 교수와 수업 계획서가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16.1%와 14.0%에 해당하였고, 강좌 내용과 친구 추천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8.1%와 5.0%로 나타났다. 권보영(2017)은 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교양교육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습자들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번에는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혜진과 김경원(2016)의 연구를 살펴보겠다. 정혜진과 김경원(2016)은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 기준을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하여 그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다섯 개의 상위 요인에 따른 수강신청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조사에서 1순위에는 수강자 요인, 2순위에는 수업 요인, 3, 4, 5순위에는 교수 요인, 권유 요인, 외부환경 요인이 각각 해당되었다. 19개 하위 요인의 경우 수강자 하위요인에서는 해당외국어에 대한 흥미가 1순위로 나타났고, 교수 하위요인에서는 수강생과의 소통 능력이 1순위로 꼽혔다. 수업 하위요인에서는 강의 내용의 유익성이, 외부환경 하위요인에서는 해당 언어 국가의 발전 가능성이, 마지막으로 권유 하위요인에서는 교수의 권유가 각각 1순위를 차지하였다. 종합 가중치 산정 결과, 해당 외국어에 대한 흥미, 해당 언어 국가 및 문화적 관심, 진로와 취업, 교수자의 소통 능력, 강좌 내용의 유익성, 평가 방법과 성적 등이 중요한 수강선택 기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혜진과 김경원(2016)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학생의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 기준의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수강과목(영어/중국어/일본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몇몇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면, 영어 과목 수강자들은 상위 1, 2, 3순위로 해당 외국어에 대한 흥미, 교수자의 소통 능력, 진로 및 취업 요인을 꼽았으며, 중국어 과목 수강자들은 영어 수강생과 마찬가지로 해당 외국어에 대한 흥미를 1순위로 선택하였고, 진로 및 취업을 2순위, 해당 외국어에 대한 흥미를 3순위로 선택하였다. 일본어 수강생의 경우 해당 언어 국가와 문화적 관심이 1순위, 해당 외국어에 대한 흥미가 2순위, 마지막으로 진로 및 취업을 3순위에 해당하였다. 정혜진과 김경원의 연구(2016)는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자들의 수강신청 기준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 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수강신청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를 수강과목별로 분석하여 좀 더 심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점도 정혜진과 김정원(2016) 연구의 의의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저마다 의미 있는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자들의 수강선택 기준을 조사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자들의 수강선택 기준 조사를 두 번째 연구 과제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강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해당 주제 연구 분야에 실증적인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과제

이 연구의 목적은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과 외국어과목 수강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학습자 인식과 수강신청 기준이 외국어 수강과목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아래와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 (1)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학습자의 인식은 수강과목(영어/중국어/일본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교양 외국어과목의 수강신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요인은 수강과목(영어/중국어/일본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4년제 D대학에서 2018년 1학기에 교양선택 과목으로 사이버 외국어과목을 수강한 189명의 대학생이다. D대학교는 2016년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기초교양대학 모델’에 선정되어 새로운 교양교육 시스템을 구축 실행하고 있다. D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양 외국어과목은 전통적인 외국어 학습 과목뿐만 아니라 문학과

문화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교양필수 과목으로 정해져 있어, 수강신청 기준을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두 번째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교양선택 과목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이버 과목 수강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다. 선정된 사이버 외국어과목은 영어 글쓰기, 기초 중국어, 기초 일본어에 해당하는 세 개 과목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215명이었고, 설문을 끝까지 완수하지 않은 학생, 설문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학생, 기초조사 내용을 누락하였던 학생의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은 189명으로 이들의 전공계열, 학년, 성별 분포는 <표1>과 같다.

<표1> 연구 대상의 전공계열, 학년 및 성별 분포(N=189)

		영어		중국어		일본어	
		N	%	N	%	N	%
전공 계열	바이오산업대학	15	21	24	40	17	30
	웰니스융합대학	24	33	15	25	19	33
	의과학대학	28	39	18	30	17	30
	한 의과대학	5	7	3	5	4	7
학년 ¹⁾	2 학년	12	17	23	38	18	32
	3 학년	29	40	24	40	16	28
	4 학년	31	43	13	22	23	40
성별	남자	23	32	15	25	10	18
	여자	49	68	45	75	47	82
합계		72	100	60	100	57	100

3.3 연구 도구

이 연구의 주요 도구는 두 종류의 설문지로, 첫 번째 연구 과제인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와 두 번째 연구 과제인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이다.

1)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8년도 1학기에 개설된 교양선택 사이버 외국어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 중에 1학년 학생은 없었다.

3.3.1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 조사 도구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알아보았던 선행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본 연구자는 교양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외국어교육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영국의 National Student Survey, 미국 인디애나대학 고등교육 연구소의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호주의 Course Experience Questionnaire 등의 학생설문조사를 기초로 하여 최정윤 외(2007, 2008)가 개발한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와 교양교육의 전반적 인식, 교육적 경험, 학습 성과를 조사한 백평구(2012)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 조사를 위한 본 연구의 설문지는 교양 외국어교육의 중요도, 전반적 만족도 및 현황과 관련된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대상이 사이버 외국어과목 수강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들에 포함된 교수자 요인 문항의 일부를 본 연구 설문지에서 제외하였다. 설문문항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제시되었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검사에서 Cronbach α 계수가 .61로 나타났다.

3.3.2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 기준 조사 도구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 과제인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조사 도구는 유사한 연구 과제를 다루었던 정혜진과 김경원(2016)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정혜진과 김경원(2016)은 학습자들의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5개의 상위요인과 1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정혜진과 김경원(2016)이 사용하였던 설문지의 19개 하위항목 중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2개의 항목을 선택하였다. 우선, 정혜진과 김경원(2016)의 수강신청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결과에서 하위 4개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정혜진과 김경원(2016)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사이버 외국어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이버 과목과 관련이 적은 3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제외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12개의 항목을 본 연구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모든 설문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제시되었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검사에서 Cronbach α 계수가 .86로 나타났다.

3.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자료는 두 종류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2018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1주일간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가 교양선택 사이버 외국어과목인 영어 글쓰기, 기초 중국어, 기초 일본어를 수강하는 215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였다. 그런 다음, 해당 학생들에게 연구의도를 설명하였고, 설문조사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학생들은 자기기입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받았고, 설문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배포 받은 설문지를 기입 없이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회수된 215개의 설문지 중에서 무기입, 미완성, 불성실로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였고 최종 189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SPSS 20.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 과제인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학습자의 인식은 수강과목(영어/중국어/일본어)에 따라 다른가?”에 답하기 위해 우선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문항별 평균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평균이 수강과목(영어/중국어/일본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강 과목을 독립변수로 하고 항목별 평균을 종속변수로 하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 과제인 “교양 외국어 과목의 수강신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요인은 수강과목(영어/중국어/일본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서 유의수준은 .05로 정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알아본 기술통계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의 기술통계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	대학에서의 교양 외국어교육은 중요하다	4.30	.73
전반적 만족도	교양 외국어과목의 질적 수준이 높음	3.79	.87
	교양 외국어과목의 수업 효과가 높음	3.77	.85
	교양 외국어과목의 다양성이 높음	3.44	.95
전반적 현황	새로운 교양 외국어과목 개설 필요함	3.70	.84
	교양 외국어과목 졸업 이수학점 비중이 낮음	3.31	.82
	교양 외국어과목 주요 수강생은 저학년임	3.39	.89
	교양 외국어과목 과목당 수강 학생 수 많음	3.68	.81

먼저, ‘대학교육에서 교양 외국어교육이 중요한가’의 항목에서 학습자의 응답은 평균 4.3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항목 가운데에 가장 높은 평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은 교양 외국어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알아보는 항목에서, 교양 외국어수업의 질적 수준과 수업 효과를 묻는 문항의 평균은 각각 3.79, 3.77로 나타나, 학습자들은 현재 교양 외국어수업의 수준과 효과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양 외국어과목의 다양성을 묻는 문항의 평균은 3.44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양 외국어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항목 가운데, ‘새로운 교양 외국어과목의 개설이 필요한가’라는 문항의 평균은 3.70으로 이는 학습자들이 새로운 외국어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교양 외국어과목의 졸업 이수학점이 적은지를 묻는 문항의 평균은 3.31로, 졸업 이수학점이 적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교양 외국어과목은 주로 저학년이 수강한다’는 문항의 평균은 3.3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양 외국어과목의 과목당 학생 수가 많다’는 문항의 평균은 3.68로, 학습자들은 외국어과목 수업 과목당 학생 수가 다소 많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강과목(영어/중국어/일본어)에 따른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살펴본 기술통계 결과와, 이러한 기술통계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3>과 <표4>와 같다.

<표3> 수강과목에 따른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의 기술통계

영역	문항	영어(N1=72)		중국어(N=60)		일본어(N=57)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중요도	중요도	4.50	.69	4.12	.73	4.25	.73
전반적 만족도	질적 수준	3.93	.87	3.73	.91	3.68	.82
	수업 효과	3.86	.90	3.78	.82	3.65	.81
	다양성	3.58	1.08	3.38	.84	3.33	.89
전반적 현황	과목개설 필요성	3.75	.91	3.68	.81	3.67	.78
	이수학점 비중	3.25	.85	3.45	.83	3.23	.78
	주요 수강 학년	3.40	1.01	3.37	.84	3.39	.77
	수강 학생 수	3.83	.87	3.63	.78	3.53	.75

<표4> 수강과목에 따른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의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문항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사후분석
중요도	집단간	5.07	2	2.53	4.869	.009	영어 수강자 > 중국어 수강자
	집단내	96.74	186	.52			
	합계	101.81	188				
질적 수준	집단간	2.25	2	1.12	1.467	.233	
	집단내	142.70	186	.76			
	합계	144.95	188				
수업 효과	집단간	1.44	2	.72	.986	.375	
	집단내	135.78	186	.73			
	합계	137.22	188				
다양성	집단간	2.32	2	1.16	1.265	.285	
	집단내	170.35	186	.92			
	합계	172.67	188				
개설 과목 필요성	집단간	.26	2	.13	.180	.836	
	집단내	133.15	186	.71			
	합계	133.41	188				
이수 학점 비중	집단간	1.82	2	.91	1.336	.265	
	집단내	126.38	186	.68			
	합계	128.20	188				
주요 수강 학년	집단간	.04	2	.02	.027	.974	
	집단내	148.76	186	.80			
	합계	148.80	188				
수강 학생 수	집단간	3.17	2	1.58	2.412	.092	
	집단내	122.14	186	.66			
	합계	125.31	188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교양 외국어교육의 중요도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88)=4.869, p=.009$). 이러한 통계적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한 Scheffé 사후분석 검증 결과, 영어 학습자와 중국어 학습자 간의 인식 차이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영어 수강자들이 중국어 수강자들 보다 대학교육에서 교양 외국어교육의 중요도가 더 크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연구 대상 집단의 학년 분포 차이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 대상의 학년은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요인은 아니지만, 영어 수강자 집단의 4학년 응답자는 43%에 해당한 반면 중국어 수강자 집단의 4학년 응답자는 22%에 불과하였다는 점은 교양 외국어교육의 중요도에 대한 두 집단 간 인식 차이의 원인일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4학년 영어 수강자와 중국어 수강자의 중요도 항목 평균 점수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두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t=2.473, p=.018$)(4학년 영어 학습자: 평균 4.55, 표준편차 .72, 4학년 중국어 학습자: 평균 3.92, 표준편차 .86). 이는 4학년 학생이 많은 영어 수강자 집단이 4학년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어 수강자 집단보다 교양 외국어교육의 중요도를 더 높게 인식하였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학년이 학습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습자 인식에 관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개인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4.2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 기준

학습자들의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알아본 기술통계는 <표5>와 같다.

<표5>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 기준의 기술통계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수강자 요인	해당 언어에 대한 관심	3.90	.94
	해당 언어 국가 및 문화에 대한 관심	3.74	.92
	취업과 진로에 도움	3.61	.96
교수 요인	교수의 인지도	3.08	1.04
	교수의 수업 방법	3.42	1.00

수업 요인	수업내용의 유익성	3.83	.87
	성적 및 평가방법	3.52	.88
	과제의 종류와 양	3.35	.94
외부환경 요인	해당 언어 국가의 발전 가능성	3.62	1.03
	해당 언어 국가의 국력	3.43	1.09
권유 요인	교수의 수강 권유	2.11	1.13
	친구 및 선배의 수강 권유	2.30	1.20

학습자가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에 대한 기술통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인 3.90을 차지한 항목은 ‘해당 언어에 대한 관심’이었다. ‘해당 언어 국가 및 문화에 대한 관심’ 항목도 3.74의 높은 평균이 나타나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이 수강신청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업 내용의 유익성’ 항목도 3.83의 높은 평균을 보였다. ‘해당 언어 국가의 발전 가능성’과 ‘해당 언어 국가의 국력’ 항목의 평균은 각각 3.62, 3.43에 해당하였다. ‘교수의 인지도’와 ‘수업 방법’ 항목에서도 3.08과 3.42의 평균을 보였다.

기술통계 결과에서 저조한 평균이 나타난 항목은 ‘교수의 수강 권유’와 ‘친구 및 선배의 수강 권유’로 평균은 각각 2.11, 2.30에 해당하였다. 권유 요인과 관련하여서, 정혜진과 김경원(2017)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도 학습자의 수강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권유 하위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일반 교양교육과목 수강신청 기준에 대한 권보영(2017)의 연구에서도 친구 추천이 수강신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률이 5%에 그쳤다. 이상의 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습자들은 외국어과목 또는 전반적인 교양과목 수강신청에서 추천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의 외국어과목 수강신청 기준이 수강과목(영어/중국어/일본어)에 따라 다른지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6>과 같다. 이러한 기술통계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7>와 같다.

<표 6> 수강과목에 따른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 기준에 대한 기술통계

영역	문항	영어(N1=72)		중국어(N=60)		일본어(N=57)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수강자 요인	해당 언어에 대한 관심	3.96	.94	3.88	.90	3.86	.97
	해당 언어 국가 및 문화에 대한 관심	3.85	.90	3.60	.92	3.74	.94
	취업과 진로에 도움	3.83	.92	3.62	.94	3.32	.97
교수 요인	교수의 인지도	3.28	1.04	2.95	1.11	2.96	.93
	교수의 수업 방법	3.71	1.00	3.25	.99	3.25	.98
수업 요인	수업내용의 유익성	4.04	.85	3.82	.77	3.58	.93
	성적 및 평가방법	3.65	.84	3.43	.85	3.46	.95
	과제의 종류와 양	3.49	.86	3.25	.95	3.30	1.01
외부 환경 요인	해당 언어 국가의 발전 가능성	3.78	1.00	3.83	.99	3.21	1.00
	해당 언어 국가의 국력	3.63	1.11	3.52	1.05	3.11	1.05
권유 요인	교수의 수강 권유	2.11	1.18	1.87	1.10	2.35	1.06
	친구 및 선배의 수강 권유	2.36	1.27	2.13	1.23	2.39	1.08

<표7> 수강과목에 따른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 기준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문항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사후분석
해당 언어에 대한 관심	집단간	.35	2	.18	.199	.820	
	집단내	163.94	186	.88			
	합계	164.27	188				
해당 언어 국가 및 문화에 대한 관심	집단간	2.00	2	1.00	1.187	.308	
	집단내	156.78	186	.84			
	합계	158.78	188				
취업과 진로에 도움	집단간	8.53	2	4.26	4.821	.009	영어 수강자 > 일본어 수강자
	집단내	164.50	186	.88			
	합계	173.03	188				
교수 인지도	집단간	4.59	2	2.29	2.162	.118	
	집단내	197.22	186	1.06			
	합계	201.81	188				

교수의 수업 방법	집단간	9.45	2	4.73	4.865	.009	영어 수강자 > 일본어 수강자, 중국어 수강자
	집단내	180.69	186	.97			
	합계	190.14	188				
수업 내용의 유익성	집단간	6.83	2	3.41	4.748	.010	영어 수강자 > 일본어 수강자
	집단내	133.73	186	.72			
	합계	140.58	188				
성적 및 평가방법	집단간	1.95	2	.98	1.266	.284	
	집단내	143.20	186	.78			
	합계	145.14	188				
과제의 종류와 양	집단간	2.08	2	1.04	1.187	.307	
	집단내	163.17	186	.88			
	합계	165.25	188				
해당 언어 국가의 발전 가능성	집단간	14.10	2	7.04	7.105	.001	영어 수강자, 중국어 수강자 > 일본어 수강자
	집단내	184.25	186	.99			
	합계	198.33	188				
해당 언어 국가의 국력	집단간	9.20	2	4.59	4.011	.020	영어 수강자 > 일본어 수강자
	집단내	213.22	186	1.15			
	합계	222.42	188				
교수의 수강 권유	집단간	6.86	2	3.43	2.736	.067	
	집단내	233.03	186	1.25			
	합계	239.89	188				
친구 및 선배의 수강 권유	집단간	2.35	2	1.18	.814	.445	
	집단내	269.05	186	1.45			
	합계	271.41	188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수강과목에 따른 학습자의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 기준에 있어서 ‘진로와 취업에 도움’($F(2, 188)=4.821, p=.009$), ‘교수의 수업 방법’($F(2, 188)=4.865, p=.009$), ‘수업 내용의 유익성’($F(2, 188)=4.748, p=.010$), ‘해당 언어 국가의 발전 가능성’($F(2, 188)=7.105, p=.001$), ‘해당 언어 국가의 국력’($F(2, 188)=4.011, p=.020$)의 다섯 항목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사후분석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와 취업에 도움’ 항목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영어 수강자와 일본어 수강자의 응답 차이 때문으로,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 시 영어 수강자들은 해당 외국어가 진로와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요인에 일본어 수강자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혜진과 김경원(2016)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정혜진과 김경원(2016) 연구에서 외국어 과목 수강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수강자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진로와 취업에 도움’ 항목에서 영어 수강자들이 일본어 수강자들보다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영어 과목 수강목표에 대하여 조사하였던 김미영(2012)의 연구에서도 학습자들은 취업을 위한 토익 점수 획득과 영어 면접 대비를 영어 과목 수강의 가장 높은 이유로 꼽은 바 있으며, 김현옥(2007) 연구에서도 영어 학습자들은 대화 능력 향상과 취업 준비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영어 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의 이와 같은 결과는 영어 능력이 여전히 취업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교수의 수업 방법’에서의 차이는 영어 수강자와 일본어와 중국어 수강자의 응답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어 수강자들이 해당 과목 수강신청을 할 때 일본어와 중국어 수강자들보다 교수의 수업 방식을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업 내용의 유익성’에서의 통계적 차이도 영어 수강자와 일본어 수강자의 응답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수강신청 시 영어 수강자들은 일본어 수강자들보다 수업 내용의 유익성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의 수업 방법’과 ‘수업 내용의 유익성’의 항목을 같이 살펴보면, 영어 수강자들은 일본어 수강자 또는 중국어 수강자들보다 수강신청 시 수업 방식이나 내용을 더 크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교양과목 경험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영어는 오랜 기간 동안 교양교육의 핵심 분야로 위상을 이어왔다(손동현, 2012). 교양 영어 과목은 회화, 독해, 쓰기, 원어 듣기, 토익 및 토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원어인 교수의 강의 및 수준별 수업을 감안해 볼 때 영어 과목의 다양화 세분화 경향은 더욱 커진다. 실제 본 연구의 만족도 설문문항 중 ‘외국어 교육의 다양성’ 항목에서 영어 수강자들의 응답 평균(3.58)이 중국어와 일본어 수강자들의 응답 평균(중국어: 3.38, 일본어: 3.33)보다 더 높게 나타나 영어 수강자들은 교양 외국어과목이 다양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던 학습자들은 영어 수업에 한하여서는 다소 높은 기준이나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영어 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때, 교수 방법이나 수업 내용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언어 국가의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영어와 중국어 수강자와 일본어 수강자의 응답 차이에서 기인하였다. 해당 언어 국가의 발전 가능성 요인은 일본어 수강자들보다 영어 수강자와 중국어 수강자의 수강신청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당 언어 국가의 국력’ 항목에서의 차이는 영어 수강자와 일본어 수강자의 응답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언어 국가의 국력은 일본어 수강자들보다 영어 수강자

들의 수강신청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 또는 중국어 수강자들에 비해 일본어 수강자들은 수강신청 시 위의 두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세계화 국제화의 현실에서 특정 국가의 발전 가능성과 국력의 영향은 우리 사회 다방면에 반영되며, 이는 대학교육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의 발전과 국력 신장으로 중국어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대학교육에서도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중국어 과목을 필수교양 과목으로 선택한 대학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²⁾,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도 2018년도에 중국어 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는 달리, 최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하여 일본어 전공 및 교양교육 분야에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방극철(2015)은 지속되는 한국 일본 간의 관계 악화와 한국에서의 일본어 효용가치 하락 등으로 일본어 전공 및 교양교육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일본어 수강자들이 일본어 과목 수강신청을 할 때, 영어나 중국어 수강자들에 비해 해당 언어 국가의 발전 가능성이나 국력 요인을 상대적으로 낮게 고려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4.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학습자 인식과 수강신청 기준이 수강과목(영어/중국어/일본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양 외국어과목인 영어 글쓰기, 기초 중국어, 기초 일본어 사이버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18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연구 과제인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학습자의 인식은 수강과목(영어/중국어/일본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교양 외국어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교양 외국어과목의 질적 수준, 수업 효과, 다양성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학습자들은 새로운 외국어과목 개설이 필요하며, 외국어과목 졸업 이수학점이 다소 낮으며, 주요 수강생은 저학년이며, 과목당 수강 학생 수가 다소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학습자의 인식은 수강과목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2) 박혜원(2010)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 등 다수의 대학에서 핵심교양, 기초필수교양 등으로 중국어를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이를 보였는데, 영어 수강자들이 중국어 수강자들보다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영어 수강 집단의 4학년 학생 분포(43%)와 중국어 수강 집단의 4학년 학생 분포(22%)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 연구 과제인 “교양 외국어과목의 수강신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요인은 수강과목(영어/중국어/일본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의 외국어과목 수강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해당 언어에 대한 관심’, ‘해당 언어 국가 및 문화에 대한 관심’, ‘취업과 진로에 도움’의 수강자 요인 항목에서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교수의 인지도’, ‘교수의 수업 방법’의 교수 요인 항목과 ‘수업 내용의 유익성’, ‘성적 및 평가방법’, ‘과제의 종류와 양’의 수업 요인 항목, 그리고 ‘해당 언어 국가의 발전 가능성’과 ‘해당 언어 국가의 국력’의 외부환경 요인 항목에서의 평균도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수의 수강 권유’와 ‘친구 및 선배의 수강 권유’의 권유 요인 항목의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권유 요인은 학습자들의 수강신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외국어과목의 수강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강과목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진로와 취업에 도움’, ‘교수의 수업 방법’, ‘수업 내용의 유익성’, ‘해당 언어 국가의 발전 가능성’, ‘해당 언어 국가의 국력’에 해당하는 다섯 개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수강신청 시 영어 수강자들이, ‘진로와 취업에 도움’, ‘수업 내용의 유익성’에서는 일본어 수강자보다, 그리고 ‘교수의 수업 방법’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 수강자보다 해당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능력이 여전히 취업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과, 오랜 기간 다양한 영어교육을 경험한 학습자들이 수업 방법과 내용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일본어 수강자들은 수강신청 시 ‘해당 언어 국가의 발전 가능성’과 ‘해당 언어 국가의 국력’ 요인을 영어 수강자 또는 중국어 수강자보다 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국 일본 간 관계나 한국에서의 일본어 효용가치 하락 등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교양 외국어교육 분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우선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에서 드러난 학습자들의 요구(needs)는 향후 교양 외국어 교육 과정 계획 및 실행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설과목의 필요성, 낮은 이수학점 비중, 과목 당 많은 수강 학생 수 등 현재 학습자들이 느끼고 있는 교양 외국어교육의 한계점이 개선된다면 학습자의 더 높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어과목 수강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은 수업 방법, 수업 내용, 성적 및 과제 등의 전형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해당 언어와 국가 및 문화에 대한 관심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외국어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외국어 학습에 국한되지 않고 학습자들의 이러한 요구와 관심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교양 외국어교육의 다양화 및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인식과 수강신청에 대한 기준이 수강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는,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내외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이 하나의 대학이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음으로 연구가 오직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이버 과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그리고 세 과목의 수업 지향이 달랐다는 점(기초 중국어, 기초 일본어, 영어 글쓰기)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도구를 교양교육 인식 조사 설문지를 주로 참고하여 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교양 외국어교육 분야에 최적화된 연구 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변화하고 있는 대학 외국어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습자들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외국어과목 수강신청 기준을 알아보았다는 점, 나아가 이를 수강과목별로 분석하여 좀 더 심층적인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2012 주요 업무보고』교육인적자원부
- 권대봉 외(2002)「대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교육학연구』40(3), pp.181-202
- 권보영(2017)「교양교육에 대한 대학생 인식 연구」『국제문화』21, pp.59-76
- 김미영(2007)「교양영어 프로그램에 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만족도 및 인식 비교」『외국어교육』14(3), pp.179-205
- 김현옥(2012)「대학생의 교양영어 학습에 관한 인식과 수업 개선에 대한 연구」『영미어문학』103, pp.159-181
- 박노국(2001)「대학생들의 교양 전공과목 선택 경향에 대한 연구」『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집』6(1), pp.48-55
- 박완성(2010)「교양 학과목 교수방법과 강의평가에 대한 연구」『교양교육연구』4(2), pp.29-44
- 박혜원(2010)「대학 교양중국어 수업 활성화 방안 연구」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방극철(2015)「대학에서 교양 일본어(제2외국어) 교육 혁신을 위한 실천적 제안」『일본어교육』74, pp.15-26
- 백승수(2017)「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교양교육연구』11(2), pp.13-51
- 백평구(2012)「교양교육 만족도, 교육적 경험, 학습 성과에 대한 인식」『교양교육연구』6(1), pp.431-166
- 손동현(2009)「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방책」『2009 춘계 교양교육협의회/교양교육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pp.13-27
- 손정애·황영희(2016)「대학 교양중국어 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고찰」『인문과학연구논총』37(1), pp.153-184
- 임병노(2015)「대학교양교육에서 외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한국외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25-32

- 조금주(2015)「외적 개혁으로 인한 우리나라 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과제」『청소년학연구』22(2), pp.323-343
- 정치봉(2002)「교양 기초교육과정에 대한 교수 학생의 인식 비교」『순천향자연과학연구논문집』8(2), pp.123-132
- 정혜진·김경원(2016)「AHP를 활용한 대학생의 수강신청 기준에 관한 연구」『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6(8), pp.723-745
- 최정운 외(2008)『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Ⅱ)』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7)『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Ⅰ)』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논문투고일 : 2018년 06월 19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8년 08월 06일
2차 수정일 : 2018년 0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8월 16일

〈要旨〉

대학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

- 영어·중국어·일본어 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

박신향

이 연구의 목적은 교양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과 교양 외국어과목 수강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학습자 인식과 수강신청 기준이 수강과목(영어/중국어/일본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에 위치한 4년제 D대학에서 교양 외국어과목인 영어 글쓰기, 기초 중국어, 기초 일본어 사이버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18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은 교양 외국어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수업의 질적 수준, 효과, 다양성의 항목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과목에 따라서는 영어 수강자들이 중국어 수강자들보다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학습자들의 외국어과목 수강신청 기준에 대한 결과로는 수강자 요인, 교수 요인, 수업 요인, 그리고 외부환경 요인이 수강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와 취업에 도움’, ‘교수의 수업 방법’, ‘수업 내용의 유익성’, ‘해당 언어 국가의 발전 가능성’, ‘해당 언어 국가의 국력’의 다섯 항목에서는 수강과목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 연구는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수강신청 기준을 수강과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좀 더 심층적인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General Foreign Language Education

- An Analysis based on Students of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Elective Courses -

Park, Sin-Hyang

This study examined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general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college students' selection of elective foreign language courses. This study also examined whether such students' perception and selection factors would differ according to foreign language classes(English, Chinese, and Japanese). To this end, this study surveyed 189 students at a university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in Korea. Firstly, this study found that students considered foreign language education quite important in college education, and they showed a high satisfaction on the quality, effectiveness, and diversity of foreign language courses. Secondly, in selecting elective foreign language courses, students were found greatly influenced by student, instructor, class and external factors. Lastly, five sub-factors influencing students' selection of elective courses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hree language classes, that is, career and employment, instruction types, lesson content, prospective and power of target language using n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considerations o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hich should be reflected in general education in Korea.